

32년 쌓인 영산강 퇴적토 이번엔 걷어낸다

전남도 정부와 협의 마무리
몽탄~하구둑 23km 구간
내년부터 단계적 준설

전남도가 영산강 하구둑 설치 이후 30여년 간 쌓이고 있는 퇴적토를 내년부터 준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매년 소규모 예산을 장기간 투입하는 방식이어서 긍정적인 반응인데다 그 필요성도 높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19일 “최근 국토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갖고 준설선 2대를 구입해 매년 250만㎡씩 준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영산강 사업 당시 영산강 상류(동강대교~늘어지, 6.7km)에 대해서는 준설한 바 있으나 하류(나주 몽탄대교~영산강 하구둑, 23.4km)는 1982년 하구둑 축조 이후 32년간 한 차례도 준설이 없었다. 하류 준설도 최종 계획에는 반영됐으나 투기장 마련 및 준설도 사후활용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매년 13cm에 이르는 오염원이 쌓이면서 영산강 용적 23%가 감소한 것은 물론 수질 악화 및 악취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영산강의 경우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 당 3.8mg으로, 낙동강(2.6mg), 한강(2.2mg), 금강(2.1mg)보다 크게 오염된 것도 바다에 쌓이고 있는 ‘오니’ 수준의 퇴적토 때문이다.

퇴적토의 양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5899만300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으며, 이를 한꺼번에 모두 준



교복나눔 행사 대성황

19일 오전 광주 남구청에서 열린 교복나눔행사에 학생과 학부모 등 7000여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판매된 교복만 1000여 벌로, 수익금은 전액 남구장학재단에 기증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설하고 투기하는 데는 1조7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대규모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한 정부에 매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준설선 2대를 구입해 우선 홍수 등 재해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준설하는 등 1단계로 10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등도 입장을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이 영산강 하류 준설을 가로막았던 준설도 투기장 장소와 사후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다. 도는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환경청의 환경기초조사 목록에 영산강 하류 퇴적토 규모 측정과 투기 방안 마련 용역을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영

준설도 하천이나 바다에 쌓인 흙·래 등 퇴적토를 펌프로 뽑아낸 것을 말한다. 영산강 하구의 퇴적토는 오니(汚泥), 즉 슬러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오니는 수중의 오염물질이 침전해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로, 지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다.

산강 하류 준설을 추진해왔으나 대규모 예산, 준설도 처리 문제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악취나 수질 문제는 물론 홍수 등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내년부터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북 이산가족 감격의 상봉 1차 대상자 82명 오늘 오후 첫 만남

3년 4개월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0일부터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남측 상봉 신청자가 북측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2월20~22일)에는 이산상봉 대상자 82명과 동반 가족 60명이다.

이들은 20일 오전 9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속초를 출발,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버스로 갈아타고 오후 1시

계 상봉 장소인 금강산호텔에 도착한다. 만일에 대비해 남측 의료진 12명과 구급차 1대도 이들과 동행한다.

이산가족들은 첫날 오후 3시 금강산호텔에서 열리는 ‘단체상봉’에서 첫 재회 후 오후 7시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21일 개별·단체 상봉, 공동중식, 22일 ‘작별상봉’ 등 2박3일간 6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만나게 된다. 이들과 만나는 북한 가족들은 모두 180명이다. /연필뉴스

광양항 에너지·물류 허브로

진입항로 준설도...해수부 전국항만 특화 개발

인근 묘도엔 물류단지
여수 크루즈 부두 확충

정부가 광양항을 에너지·복합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접안시설이 부족해 선박이 외항에서 대기하는 비율인 ‘체선율’을 줄이기 위해 퇴적토도 파내기로 했다.

또 신안군 흥도를 비롯해 썰물 때 물 밖으로 드러나는 곳인 간조 노출지를 정확히 측정해 그 위에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양항은 에너지·복합물류허브, 울산항은 오일허브, 인천항은 중국교역 거점허브 등 항만별로 특화·개발된다.

체선율을 줄이기 위한 준설도 작업도 결연된다. 전국 4대 항만 가운데 광양항의 체선율은 5.17%로 울산항 3.8%, 인천항 1.4%, 부산항 0.26%에 비해 높다.

해수부는 광양항 준설을 통해 광양항의 체선율을 줄이고, 인근 묘도 준설도 투기장을 에너지·물

류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여수,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항만에 크루즈 부두 8선석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양 영토도 더욱 늘어나게 됐다. 현재 영해기점을 알리는 표지는 동해안의 달만강, 남해안의 장수도, 서해안의 소령도 등 23개 영해기점도서의 해안에 설치돼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간조 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다. 썰물 때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암초라도 그 위에 항상 해수면보다 높은 시설을 세우면 영해기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도, 흥도, 거서, 황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염분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정확한 간조노출지를 찾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우리 해양 영토가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4년 2월21일(금) ~24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4

변호사 수임제한 해제

저는 2013. 2.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사직하고 여러분의 성원 속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법에 따른 전임지 수임제한이 해제되기에 광주고등법원(고등검찰청 포함) 사건에 관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약력 -

- 광주 금호고, 서울대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 제2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검사
- 미국 UNC 로스쿨 국비 연수
- 광주지방법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광주지방법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법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변호사 김준성 올림

■ 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동 714-20 광주지방법원회관 303회법원정문 앞
■ 대표전화 : (062) 233-3030

The New E 300 4 MATIC Avantgarde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00 1.991cc, 1.633kg, 자동7단, 복합연비 12.0km/ℓ(도시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45g/km
E 220 CDI 2.143cc, 1.7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6.3km/ℓ(도시연비 14.2km/ℓ, 고속도로연비 19.8km/ℓ), 1등급, 복합CO₂배출량 120g/km
E 250 CDI 4MATIC 2.143cc, 1.843kg, 자동7단, 복합연비 14.2km/ℓ(도시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4km/ℓ),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9g/km
E 300 3.498cc, 1.7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0.3km/ℓ(도시연비 8.9km/ℓ, 고속도로연비 12.7km/ℓ), 4등급, 복합CO₂배출량 172g/km
E 300 4MATIC 3.498cc, 1.830kg, 자동7단, 복합연비 9km/ℓ(도시연비 7.9km/ℓ, 고속도로연비 10.9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197g/km
E 350 4MATIC 3.498cc, 1.803kg, 자동7단, 복합연비 9.2km/ℓ(도시연비 8.2km/ℓ, 고속도로연비 11.1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192g/km
※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이론치로 도로상태, 운전방식,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수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